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운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운장대를 돌려 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054) 655-1011, 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산
 Tel. 02)720-8489

‘탄핵 정국’ 우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불교계 지도자들과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며 탄핵정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국민 단합과 지혜를 강조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탄핵안 가결 즉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결과는 국가가 국민의 뜻을 모아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부족한 데서 비롯됐다”며 “더 이상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비상한 노력으로 국민단합 모색해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국민으로 치닫기 보다는 안정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고,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원용화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각종 효암 총무원장도 “국민들의 큰 자비, 큰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 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실천승가회, 재가연대, 대불정, 불교여성개발원 등 불교계 단체들도 공식 또는 단체장의 입장 표명을 통해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는 “정치인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 남동우 기자

불자들이 ‘공부바람’ 전국 후끈

불교대학 수강생 최고 2배까지 늘어 “강의실 좁다”

20~30대 · 남성 증가 추세... ‘바른신행’ 견인

불교대학에 ‘공부 바람’이 뜨겁게 불고 있다.

올봄 새 학기를 시작한 전국 불교대학의 수강인원이 예년에 비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2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세계전역에 불고 있는 명상열풍과, 한국불교계의 선에 대한 관심이 불교대학의 면학 열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20~30대 불자와 남성불자들의 참여가 연평균 20~30% 가량 증가, 기존 40~50대 여성 재가불자 중심의 수강계층을 변화시키며 학습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본지가 최근 100여개의 불교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드러났다.

수강인원이 가장 폭으로 늘어난 곳은 불광사불교대학과 능인선원불교대학, 인천불교대학 등 서울·경기지역의 불교대학, 불광사불교대학은 포교원에서 선정된 ‘2003학년도 우수 교육기관’의 명성에 걸맞게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의 수강생이 늘었다.

다. 능인선원불교대학 또한 기수별 모집과 재학·졸업생들의 연계활동 등으로 수강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밖에 구미불교대학과 청도불교대학 대구·경북지역의 불교대학과 전북불교대학, 강진불교대학, 남원불교대학, 이리불교대학 등 호남 지역 불교대학들도 공부 열기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이다.

수강생 증가 외에 참여연령이 낮아지고, 남성불자들의 참여율이 증가하는 것도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다. 충북불교대학의 경우 지난해까지 50대 여성불자가 주를 이뤘던 수강층이 30대대 대폭 낮아지면서 전체 분위기가 젊고 밝아졌다. 대구불교대학과 경북불교대학은 올해 30대~40대의 수강생이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호남 지역 불교대학의 경우 지역 관공서 직원들의 입학이 두드러졌으며, 무료·타종교인들의 입학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불자들의 활동도 주목할만하다. 전체 수강생의 70%가 남성불자들로 구성된 서울 동산불교대학은 거

사 신행단체인 ‘붓다클럽’을 창설, 전국에 지부를 두고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통도사불교대학, 대원불교대학, 강원불교대학 역시 정치·언론·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사를 중심으로 군부대와 보훈병원 등지에서 포교와 교육봉사 활동을 벌이며 재가 신행의 모범이 되고 있다.

대구불교대학 전병호 사무장은 “제대로 알고 신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후 남성불자들과 젊은 층의 불자들이 불교대학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불교대학이 젊어지고 참가대상이 다양해지는 이유는 인식 변화 이외에도 수강생의 눈높이에 맞춘 커리큘럼 개발과 자원봉사, 유적답사 등의 특활반 활동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지역의 경우, 김포사불교대학과 대한불교교사대, 영축불교대학 등이 요가·참선·다도·상당이론·사람 음식 만들기 등 생활에 유의한

강좌들을 개설해 지역 불자들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에게 불교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서울·경기지역의 조계사·봉은사·도선사·화계사 불교대학 역시 마찬가지.

이들 불교대학은 수강 기수별 단위모임을 자체적으로 조직, 요양원과 보육원 등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지속적인 후원활동과 봉사활동을 벌이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금강불교대학과 진주불교대학, 울산불교교육대학, 정토불교대학 등이 있다.

울산불교교육대학 박병화 사무장은 “불교교육과 문화활동에 대한 재가 불자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강좌의 질과 학습 분위기를 향상시키고 심지어 불교대학이 새롭게 개설되고 있다”며 “울산지역만 해도 정토사불교대학, 시민불교대학, 여래사불교대학 등 7개 불교대학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남지역도 3월에 정도불교대학, 선불교대학 등이 신설돼 첫 입학식을 갖는다.

이준영 · 천미희 · 김은경 ·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 2004 부다피아 여름캠프

하와이에서 여름방학을! 영어 배우고 역사·문화체험도...

본사는 창간10주년을 맞아 100년전 이민의 첫발을 내딛던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문화체험캠프를 개최합니다. 2004 부다피아 여름캠프는 전문적인 아학교육과 함께 역사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입니다.

- ▶ 참가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 기간 : 7월 28일~8월 17일(20박 21일)
- ▶ 참가비 : 250만원(여권·비자수수료 별도)
- ▶ 정원 : 선착순 50명
- ▶ 참가신청 : 3월 15일~5월 10일까지
- ▶ 장소 : 하와이 무랑사 한인문화원
- ▶ 협찬 : 진각종총리원 (재)대한불교진흥원 (재)보덕학회

▶ 주요 프로그램

- ▷ 어학연수 - 원어민 선생님의 총 54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원어민 교사와 총 60시간에 걸쳐 역사 문화지역을 함께 탐방하며 회화를 실제 상황에 적용
- ▷ 문화체험 - 폴리네시아인속촌 및 공연관람, 빅이랜드 화산성 탐방, 자연 박물관, 플고레소 관광, 출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라나 궁전 탐방
- ▷ 역사체험 - 한인의 땅서민 사랑수능장, 세계대전 격전지 진주만 탐방
- ▷ 해양스포츠 - 와이키키해변 수영,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 탐방

▶ 이런 점이 좋아요

- ▷ 참가비 최소화 - 무랑사 숙식 후원, 항공요금과 교육비, 관광요금만 정산.
- ▷ 믿을 수 있는 기관 - 불교계 대표 언론사와 하와이 무랑사가 주최
- ▷ 원어민 교수진 - 소정의 자격을 획득하고, 국제경험을 쌓은 원어민 강사
- ▷ 어학연수기관 사용 교재 - 미국 어학연수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
- ▷ 효과적인 회화교사 - 문화체험실제 상황에 유창한 영어를 구사
- ▷ 단계별 수업 - Test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레벨에서 공부

문의: 현대불교신문 02) 722-4162~3, 016-292-1987

참가비 입금통장: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한 한국을 대표하는 7대 종교 지도자들은 3월 10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7대 종교 지도자들은 ‘병든 정치 정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번 선거를 통하여 병든 정치를 정화한다는 각오로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박재환 기자

금강대 새 총장에 김유혁 씨 선임

금강불교학원(이사장 도응)은 3월 9일 서울 관문사에서 열린 제20차 임시 이사회에서 천태종립 금강대 제2대 총장에 김유혁(73) 박사를 선출했다.

김유혁 신임 총장은 “금강대의 지역적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고 지혜를, 재화물, 취업률을 동시에 제고하는 경영기법을 통해 금강대를 불교와 한국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 속의 대학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14분 박봉영 기자

선원장 초청 대법회
 법장 스님
 ‘경허·만공선사의 가르침’
 3월 21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

‘할’

어떻게 가십니까? 천당, 극락, 파라디스

가진 어디를 가십니까? 천당, 축생, 지옥 자기 마음에 다 있습니다

그림 · 조태호

- 합주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운장대가 있는 천년고찰 용문사에서!

운장대를 돌려 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 시대에 창건되어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신명을 이어 왔으며,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등 한국 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천년고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종경각인 운장대 및 대장전, 목각탑·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등 보물 및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운장대는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많은 중생들이 정성껏 기도하여 운장대를 둘러싼 목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는 자비로우시며 영험한 부처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올해 갑신년에는 문답이 있습니다. 문답에는 ‘중속에 결혼하기에 좋고, 수익을 관드는데 좋다.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 문답에는 사리들이 더두어 와서 불공을 드르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국력세계가 건다고 하여 사람의 노인들이 분주히 달려오고 다두어 모인다.’고 합니다.((동국서사기)). 특히 문답에 선행제수제를 행하기 전에 방생과 사찰순례를 먼저 하면, 불보살님의 무량한 기도가 한층 더 할 것이라 하여 사람들은 이름있는 절들을 찾아 방생을 합니다.

용문사에는 5분거리로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웅사, 김공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40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용문사에 오셔서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운장대를 둘러싸서 모든 액이 소멸되고 바라는 바 소원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청 안 합경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 (우)757-800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용문사 오시는 길
 버스 : 동서울대리남 송팔(06:40~6:30, 30분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송충채(서울) :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송충채(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송충채(대구) : 중앙고속도로 ⇒ 영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대웅사 10분 소요, 김공사 30분 소요, 용문사 10분 소요, 부석사 30분 소요, 청량사 30분 소요, 봉정사 30분 소요
 • 용문사에서 5분거리로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지량 대법지량 주지 가능